

‘2010충남 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전망과 과제

오석민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물관장

I. 2010충남 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의의

최근 충청남도의 상황은 마치 1990년대의 경기도를 연상시킨다. 2008년까지 최근 5년간 충남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0.82%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변화의 반증이다. 물론 인구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이 서북부이고, 금강변의 서남부 지역은 아직도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화의 영향은 점진적으로 남진하고 있으며, 버지않은 장래에 서남부 지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침체 내지는 성장 둔화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을 것이고, 최소한 충남의 상황은 최근 한국 경제의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전라도 등의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경기도의 상황을 되짚어 보자.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기도는 서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기 신도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착수되면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재정부족을 탓하면서 문화분야에 대한 투자를 거론하지도 못하던 상황은 역전되었고, 지금은 기초단체 단위의 문화사업이 때로는 여타 광역단체를 능가하는 규모가 되었다. 현재 충청남도도 서북부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조만간 증가한 인구들에 의하여 새로운 문화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가운데 충청남도에서는 2010년 굵직한 문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완구 도지사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백제문화제는 올해 세계 대백제전으로 큰 획을 긋게 될 것이

다. 올해는 또한 '대충청 방문의 해'이기도 하다. 2008년 광주·전남, 2009년 인천에 이어서 추진되는데, 충청권 3개 지자체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등에서 후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충남의 대백제전, 대전의 열기구 축제, 충북의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연계시키는 상품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4월 기지시줄다리기 행사에서의 선포식 이후 '2010 충남 민속문화의 해' 사업도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된다. 충남의 민속문화에 대한 조사연구와 더불어, 민속문화상품 개발, 민속체험마을 운영, 민속축제 한마당, 보부상 유물 특별전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충청남도의 민속 분야의 연구동향과 함께 활용현황을 살펴본 후에, '2010 충남 민속문화의 해'에 포함된 주요 사업을 개괄하고, 이어서 향후의 과제들 살펴보고자 한다.

II. 충남민속에 대한 연구동향과 활용현황

충청도의 민속 분야는 서울 수도권의 소위 근기지방과 속칭 '남도' 민속의 틈바구니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 지역의 민속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인양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이진적인 풍속들이 민속학의 전부인양 장식되는 경우도 많았다. 색다른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탓이다. 현무암의 돌담으로 둘러싸인 풍광을 자랑하는 제주도의 풍속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고, 강원도 산촌의 너와집, 섬진강변의 매화와 재첩 또한 가고 싶은 곳으로 추천되었다. 학문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외진 지역의 특이한 사실들을 조사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 서울 민속에 대한 연구에는 역사학자까지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만큼 문헌의 기록자료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과 가까운 주변지역의 민속은 스쳐지나가기 일쑤였고, 민속학 연구에서는 '서울과 변방'이라는 이분법이 강화되었다. 경상도의 들놀이가 관심사가 되고, 전라도의 판소리와 강릉의 단오제가 일찍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목되었다. 제주도 무속의 분향당은 그곳을 '신들의 고향'으로 승격시켰다. 반대로 서울과 양주의 산대놀이가 영화의 주제로 떠오르고, 종묘 제례악 또한 마찬가지였다. 서울 인근의 민속은 한국의 '정통'에 가깝다고 평가받았고, 외진 벽지의 낯선 풍속들은 호기심의 대상으로 각광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충남 민속에 대한 관심은 어떠할까? 판소리만 해도 그렇다. 전라도에 동편제와 서편제가 있다면, 충청도와 경기도에는 중고제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문화로 평가받는 무속의 경우, 소위 '앉은 곳'의 전통은 현재 충청도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을 뿐이다. 조선 말엽부터 장터 민속을 대표하는 보부상 유물은 충남 내포 지역의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대규모 유물이 전해지는 보부상 관련 유물은 충남의 예덕상무사, 저산팔음상무사, 원흥주육군상무사 외에는 경상북도 고령의 상무사 유물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다면, 결코 충남의 민속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소외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은 대체로 해당 종목에 대한 연구결과의 축적에 기멸 수밖에 없다. 복원 또는 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콘텐츠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속자원을 활용한 충남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외암민속마을의 짚풀문화제가 있다. 중요민속자료 제236호로 지정된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의 매년 10월 초가이영 올리기 체험 등을 포함하는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또한 최근 전수회관을 새로 건립하고, 당진을 대표하는 민속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모두 10만명을 헤아리는 명소로 발전한 행사들이다. 이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겠지만,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된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사실 민속자원인 경우, 부모 세대에게는 익숙한 대상인 까닭에 가족 단위의 체험행사로는 적절한 관광대상이다.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많다는 점에서 어린이들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초가지붕의 이엉을 올리고 새끼를 꼬며, 도리깨·홀테·절구 등을 체험하는 일은 농촌을 경험하지 못한 대도시 태생의 세대에게나 흥미로운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충청남도에는 이와 같은 평범한 농촌의 옛 풍속 외에도, 흥미로운 소재가 많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중고제 판소리, 앉은 곳의 전통, 보부상 유물 외에도, 서해안의 독살이나 태안반도의 일원의 자염(煮鹽) 등의 자원은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민속자원들로 판단된다. 2010 충남 민속문화의 해 사업에서는, 그러한 자원들을 망라하여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아울러 민속마을체험이나 민속축제 한마당 등의 활용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충남의 민속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셈이다.

Ⅲ. 2010충남 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구성과 특징

'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국립민속박물관과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2007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2008년 전라북도와 2009년 경상북도에 개최한 바가 있으며, 충청남도는 4번째로 유치하였고, 이어서 2011년에는 전라남도가 예정되어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2008년 7월 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유치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2월 19일 국립민속박물관과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실무팀이 구성되었고, 2010년 3월 현재 총 21개 사업에 대하여 2,75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 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2010 충남 민속문화의 해 사업량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총 계		2009년		2010년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계	21(4)	2,750(900)	7	900	14(4)	1,850(900)
국립민속박물관	11(4)	1,270(500)	5	450	6(4)	820(500)
충청남도	10(4)	1,480(400)	2	450	8(4)	1,030(400)

* ()는 공통사업

앞서 언급했듯이, 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기초연구와 민속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구사업은 조사를 위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전례에 따라 이미 2009년에 착수된 사업도 일부 있다. 그 가운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는 마을 조사사업과 주제 연구사업이 있다. 마을 조사사업은 2개의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민속지와 살림살이 보고서를 간행함과 동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업이며, 주제 연구사업은 충남의 대표적인 5개 민속주제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마을 조사사업의 예산은 450백만원(국비)이며, 대상 마을은 부여군 은산면 은산1리와 서천군 서면 월하성리이다. 이 사업의 조사는 현재 완료되었으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편집과 출판을 준비중이다. 주제 연구사업에는 충남 서해안의 어로민속, 금강과 유통, 앓은 낫의 전통, 젓갈과 소금, 호서 3대 명가의 보듬살이와 전통 등 5개의 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 또한 집필은 완료되었고 최종 교정과 편집작업이

준비중이다.

충청남도에서 추진되는 기초연구사업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 결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의 민속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처음에 거론된 사업은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이다.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도서 발간과 (동)영상 제작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대전과 인천광역시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향후 활용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라는 점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400백만원(도비)이며, 기·예능보유자의 사망이나 확보된 사업비 등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민속주 5종목, 무용 1종목, 음악 2종목 및 기타 1종목 등 9종목을 향후에 추진하기로 결정되었고, 총 29종목에 대하여 20권의 도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2010년 3월 현재 기록도서의 발간은 1차분 5종목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2차 및 3차 사업을 분리 발주할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기록도서 발간사업이 확정된 후에, ① 충남의 민속의례 및 놀이, 민간신앙, 생산풍습, 생활풍습 등을 수록한 민속사진집(150백만원), ② 초·중·고교생 등 일반인을 위한 총 12권의 충남 민속 개설서(330백만원), ③ 백제 관련 설화집(30백만원), ④ 충남 관련 민속분야 연구 목록집(20백만원) 발간 등의 연구사업이 추가되었다.

한편 도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민속자원 활용 관련 사업은 오는 4월 10일 당진군 기지시줄다리기 행사와 같이 하는 민속문화의 해 선포식과 함께 시작된다. 줄 제작을 포함하면 한 달여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하여 선포식 행사의 기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내는 물론 일부 외국인들까지 참여하는 행사에서, 참여자의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줄 결합 행사에 맞추어 금년이 '2010충남 민속문화의 해'임을 선포하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2010년 2월 현재 기지시 줄다리기를 소재로 한 민속문화의 해 엠블럼을 제



〈그림 1〉 2010 충남 민속문화의 해 엠블럼



〈그림 2〉 2006년 기지시줄다리기 행사

작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본 사업에 포함된 개별사업 가운데 하나인 민속문화상품 개발의 경우, 기지시줄다리기를 모티브로 한 상품에 대해서는 최소한 1~2개의 시제품을 행사 전에 선보일 계획이다.

민속문화상품 개발은 충남의 민속자원을 소재로 하여 기념품을 제작하는 시도이다. 문화상품의 결과물로는 음악과 노래, 애니메이션과 영화, 음식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사업비를 고려하여 대중적인 기념품 제작과 충남을 방문하는 귀빈을 겨냥한 고가의 명품 제작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물 가운데 기지시 관련 상품 일부는 4월 10일 선포식 행사 이전에 소개할 예정이며, 나머지 상품의 경우에는 대백제전 기간 중에 특별전시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또한 판매할 계획이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과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가자,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은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연중 계속될 예정의 사업이다. 현재 후보 대상지를 섭외하고 있는데, 현재 숙박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의지가 확인되는 4~5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최종 조율단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자, 1박 2일' 사업의 경우, 일부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청도 종가의 전통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에 고택 문화재 소유자들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종가 전통문화체험 및 고택 답사를 실시하는 사업을 모색중이다.

'2010 민속축제 한마당'은 대백제전 행사와 연계한 공연계획이다. 현재 대백제전 행사 기간 중에 2일간 전국의 향토 소리꾼들을 모아 경연을 벌일 계획이다. 중간에 무형문화재 공연이 삽입되며, 충남 방언 경연대회도 연계 개최가 모색중이다. 민속축제 한마당에 앞서 전국민속예술제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각각 2일간 벌어질 계획이므로, 대백제전 행사에 총 6일 동안 민속예술 공연장이 운영되는 셈이다. 장소는 잠정 공주로 정해졌으며, 사업비는 26억천만원이다.

각 지역의 특징적인 유물을 선보이는 특별전의 주제는 "보부상, 다시 길을 나서다"로 정해졌다. 우선 3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한 후에, 대백제전 기

간인 9월 15일부터 10월 17일 동안에는 유물을 이관하여 충남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특별전 개막을 준비 중에 있다. 최근 민속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에서는 6~8월 사이의 기간을 빌어 추가 전시를 검토 중에 있다.

이 외에 충남의 사립 박물관에 소장된 민속 관련 유물에 대한 정리작업이 국립민속박물관의 주도로 진행된다. 대백제전 기간 중에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주관하는 '2010 한국민속학자 대회'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또한 6월 12일부터 2일간 개최되는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에 대한 무형문화재 공연행사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궁도대회도 본 사업과 연계 시행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IV. 사업의 의의와 향후의 과제

전체적으로 민속문화의 해에 포함된 사업은 크게 기초연구와 활용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초연구 분야의 사업은 향후의 연구를 위한 토대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물론 사업규모가 다소 미진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시행한 기록화 사업의 후속사업의 성격이 짙은 기록도서 발간사업에는 사진과 동영상 기록이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충남 관련 민속분야 연구 목록집, 주요 민속분야의 사진자료를 집대성한 민속사진집, 그리고 백제 관련 설화집 발간 등은 민속연구의 토대 구축이라는 점에서 활용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충남 민속 개설서 12권은 민속연구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속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은 크게 민속문화상품 개발, '가자,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속축제 한마당, 그리고 보부상 특별전 등이 있다.

2010충남 민속문화의 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충남에서는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선적인 관심사는 성공적인 마무리이다. 아무리 내실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사업의 실패는 곧바로 질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민속분야에 대한 무용론, 장기적으로는 민속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면밀한 준비를 통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주최기관인 충청남도과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추진위원회 및 실무를 총괄하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다. 대백제

전이나 대중청 방문의 해와 연계시키는 구체적인 전략 수립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공 외에도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다. 우선 완결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관심이다. 우선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종목이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진집과 동영상 기록은 처음부터 검토되지도 못하였다. 민속문화상품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상의 이유로 총 15종의 민속상품 개발에 한정하였다. 물론 원천 자료집 발간을 통하여, 향후 다른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는 하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천자료집에 포함되었으나, 상품개발작업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대상,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못하였으나 잠재력을 갖춘 민속자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업 추진결과, 충남의 민속자원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2010년 이후에도 이에 대한 후속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후속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특정 마을 등에 대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의 좋았다고 하더라도, 예산상의 문제로 프로그램 운영이 단기간에 끝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정착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속문화의 해에 따른 1년의 기간은 시험적인 시행에 불과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엄격한 평가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한 후에, 지속적 운영을 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성공적 개최 이후에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점이다.